

여성 혁명가의 귀환, 그 이후

-해방기 여성혁명가의 형상과 가족 서사

박지영*

차례

1. 들어가는 말
2. 여성 혁명가의 귀환 - 혁명을 꿈꾸는 여성들
3. 여성 혁명가의 형상과 새로운 가족 서사
-아버지의 부정(부재)과 '진보적인' 어머니와 여성노동자 누이
4. 결론

국문초록

본고는 해방기 텍스트에 나타난 여성 혁명가의 형상을 살펴보는 것이 그 목적이다. 해방이 되자 해외에 있거나 지하에 숨어있던 여성 혁명가들은 조국으로 귀환한다. 해방기 여러 매체에서는 이들의 귀환을 앞다투어 다루고 이는 식민지 시기 서사화되지 못했던 여성 혁명가의 존재성을 입증한다. 이러한 여성혁명가들의 존재는 당대 여성 해방의 열망에 큰 계기를 제공한다. 실제로 남북한 단정 수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여성해방은 민족국가건설 운동과 함께 여성들의 주요 투쟁 목표였다.

이러한 해방과 혁명 열기에 힘입어 문학 텍스트에도 여성혁명가의 형상이 나타난다. 문학텍스트에서 여성혁명가들은 가족 서사의 틀 내부에서 등장한다. 아버지가 부재하거나, 부정하고 출발하는 해방기 혁명 서사에서 어머니는 이를 대신할 새로운 진보적 표상이었다. 또한 여성노동자인 누이의 형상화 역시 혁명기 노동자 주체의 소환과 동시에 진행된다. 그리하여 김상훈의 경우처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연구교수

럼, 해방기 혁명 서사의 주체들은 혁명적인 가족서사를 꿈꾸었고 이는 연대와 포용을 기반으로한 새로운 유토피아적 ‘민족 국가’의 형상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 역시 남성중심주의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다. 해방기는 아버지를 부정하고, 여성혁명가들이 호명되지만, 이들은 직접적으로 형상화되지 못한다. 대신 그 자리에 이름을 잃은 ‘어머니’와 여성노동자 ‘누이’가 등장한다. 더 나아가 결국 어머니들은 희생되며, 이를 딛고 아들(오빠)이 일어난다. 이는 해방기가 여전히 청년의 시대였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또한 이들 누이, 혹은 어머니의 호명 역시 당대 남성 주체 재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당대 역사적 상황으로 인해 훼손된 남성 주체성을 보상받기 위한 것이었다. 정서적 파토스로 이성적 논리의 파행을 극복하려 한 것이다.

그런데 해방기를 지나 대한민국 건국 이후의 텍스트에는 여전히 혁명가인 누이와 어머니가 호출된다. 1980년대 민중 서사에 등장하는 어머니, 누이상이 그 예이다. 이는 해방기에 남성주체들이 어머니를 호명했던 것처럼, 이 또한 대한민국 정치사 전반을 넘어, 아직도 이러한 남성성의 억압, 그리고 위기가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을 암시하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소위 진보적 남성 작가들도 ‘어머니’ 혹은 ‘누이’를 대한민국 남성성의 상처를 수습해 줄 만병통치약으로 호명하는 데 무의식적으로 공모하게 된다. 해방기 가족 서사는 이러한 공모의 출발점이다.

핵심어 : 해방기, 여성혁명가, 귀환, 여성해방, 민족국가건설, 가족서사, 진보적인 어머니, 여성노동자, 누이, 남성주체성, 훼손, 보상

1. 들어가는 말

크지 않은 키, 검은 얼굴, 아무지고 끝을 매섭게 맺는 말씨, 향시 무엇을 주시하는 눈매, 온몸이 혁명에 젖었고 혁명 그것인 듯이 대담해 보였다.¹⁾

1) 「이십일년간의 투쟁생활」, 『독립신보』, 1946.11.21일자.(남화숙, 「인물발굴, ‘여장군’

위 구절은 해방 직후 한 신문 기사에서 중국 민족해방전선에서 경성으로 돌아온 여성혁명이 김명시 장군²⁾을 묘사한 것이다. “혁명에 젖었고 혁명 그것인 듯이 대답해 보였다”는 구절은 혁명가라는 형상에 근엄한 아우라를 선사한다. 해방 직후 정치적 현장에서는 이렇듯 보기드문 여성 혁명가의 형상이 나타난다. 김명시의 경우는 통용되는 명칭인 ‘여사’가 아니라 ‘장군’으로 호명되고 있다. 이는 해방기가 청년남성들처럼 ‘여성도’ 국가건설의 파트너로 인정받았던 혁명의 시기, 비상사태였음을 말해주는 것이다.³⁾

1945년 8월 15일 저항적 지식인 함석헌은 ‘해방이 도둑 같이 왔다’고 했다 한다. 해방기에 맹활약한 시인 오장환은 그의 대표시 『병든 서울』에서 ‘8월 15일 밤에’, ‘병원에서 울었’으나 그것은 해방이 되었다는 소식을 믿지 못해 그 행복감에 울었던 것이 아니라, ‘그저 병든 탕아(蕩兒)로/ 홀어머니 앞에서 죽는 것이 부끄럽고 원통하여’ 울었다고 표현한 바 있다. 해방을 맞이하는 당대 지식인들의 의식적 태도를 이보다 더 잘 설명해 주는 어구는 없을 것이다. 친일파들은 물론 국외나 지하에서 활동하던 혁명가들에게조차 해방은 그렇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왔고, 그래

김명시의 생애, 여성사연구회 편, 『여성』2, 창작사, 354쪽에서 재인용)

- 2) 김명시(金命時)는 식민지 시기 대표적인 여성혁명가이다. 오빠가 대표적인 혁명가인 김형선이며, 모스크바대학에 유학까지 갔다는 사회주의 인텔리 여성이다. 『조선연감』48, 461의 기록을 전하면 다음과 같다. 41세(1947년 현재, 출신지 1) 경상남도 마산 출생, 학력 1) 1925年 莫府(모스크바) 유학, 경력및활동 1) 1925年 공청(共靑) 가입, 1927年 上海 轉進, 중국공산당(中共) 가입, 1928年 동방피압박민족반제동맹 참가, 1930年 5·30운동으로 上海로 망명, 1932年 귀국활동중 피검 7年 복역, 1939年 재차 중국으로 망명하여 연안독립동맹 회복책임자로 활동, 1947년 현재 민주여성동맹 중앙선전부장.(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 3) 김수영은 이 시기를 ‘가장 자유로웠던, 좌·우의 구별 없던, 몽마르뜨같은 분위기’라고 한다.(김수영, 『마리셔사』, 『김수영 전집2-산문』, 민음사, 2003 참조.) 잠깐동안이지만, 해방 직후는 이념의 구별없이 정치활동이 자유로웠던 시대였기 때문이다. 여성해방에 대한 열정도 이러한 토대였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서 그만큼 놀랍고 감격적인 것이었다. 그야말로 식민지 시대 대표적 저항시 「그날이 오면」(심훈 作)에 표현된 ‘그날이 오면’, ‘두개골이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 메고는/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을 서’, ‘기쁨을 표현하겠다’는 그 열망이 바로 눈앞에서 실현된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그래서 시인 오장환은 거리로 ‘날마다 뛰쳐나’갔다고 했고, 종로 네거리에서 ‘인민의 힘으로 되는 새 나라’를 꿈꾸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게 된다.⁴⁾

이러한 상황에서 특히 독립투사, 혁명가들의 귀환은 해방 이후 국가건설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퍼포먼스였다. 신문마다 혁명가들의 귀환을 보도했다. 해방으로 식민지 시대 형상화가 금지된 것들, 가장 고통받았던 자들의 형상이 텍스트의 주체로 부활한다.⁵⁾ 이육사, 운동주의 부활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해방 직후에는 식민지 시대 투쟁담이 수기류로 많이 발표된다. 이러한 현상은 갑작스런 해방으로 미처 마련되지 못한 서사를 드러내는 데 이 장르가 가장 적절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투쟁의 경험이 신화가 아니라 진실임을 증명해 주는 데 수기만큼 적절한 매개체가 드물기 때문이다. 또한 독립이 연합군의 승리로, 어부지리로 얻어진 것이라는 피해의식을 극복하고 스스로 조국광복을 이룩했다는 혁명 전통을 세우기 위한 주체의 서사인 것이다. 80년대 운동권 필독서였던 님웨일즈의 『아리랑』⁶⁾, 대표적인 혁명 서사인 오기영의 『사슬이 풀릴

4) 해방기 거리의 정치에 대해서는 천정환, 『해방기 거리의 정치와 표상의 생산』, 『상허학보』 제26집, 상허학회, 2009.6. 참조.

5) 해방기 식민지 기억의 형상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혜령, 『‘해방기’ 식민지 기억의 한 양상과 젠더』, 『여성문학연구』Vol.19, 2008. 식민지 시기 사회주의자의 형상화 방법과 해방 이후 전유 방법에 대해서는 이혜령, 『특집: 근대지식으로서의 사회주의와 그 문화,문화적 표상: 감옥 혹은 부재의 시간들 - 식민지 조선에서 사회주의자를 재현한다는 것, 그 가능성의 조건-』, 『대동문화연구』Vol.64, 2008. 참조.

6) 김산, 『외국어로 발표된 조선인의 저서! 아리랑(조선인반항자의 일대기)』란 제목으로

때』⁷⁾가 당대 대표 매체인 『신천지』에 실린 것이 그 예이다. 여성혁명가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김명시, 박진홍, 유영준, 정칠성 등 식민지 시기 대표 사회주의 여성들의 투쟁담이 수기나 인터뷰 형식으로 신문에 연재되는 상황은 식민지 시대에는 서사화되지 못했던 것, 혁명의 보조자가 아닌, 직접 뼈리를 살포하고, 대중을 계몽하며, 총을 들고 싸운 여성혁명가의 존재성을 입증해 준 것이다.

실제로 해방기에는 많은 여성들도 거리로 나온다. 여성잡지, 여성신문이 발간되고⁸⁾, ‘여자국민당’이라는 여성의 당이 만들어지는 등 여성들의 발언 기회도 많아지고 정치적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된다.⁹⁾ 좌/우파를 막론하고 여성들은 국가건설에 사명감을 갖고 정치 활동을 시작한 것이다. 잠시였지만 소위 집나간 노라들의 시대였던 것이다.

물론 이러한 격정의 시기는 얼마 가지 않는다. 소련이라는 점령군의 존재와 국제정치의 논리는 각기 남과 북에 다른 체제의 국가를 만들었다. 남한의 경우는 단정수립 후 4.3 제주 민중 항쟁, 여순반란을 기점으로 반공주의 체제가 강화되고 새로운 민족국가의 건설을 희망하던 순수한 정치적 열망이 좌절된다. 이러한 와중에 많은 여성 혁명가들이 월북을 하고, 여성들의 정치적 활동 역시 위축될 수밖에 없게 된다. 대한민국

『신천지』1권9호, 1946년 10월1일~3권1호, 1948년 1월 1일까지 연재되었다.

- 7) 오기영, 「사슬이 풀릴 때」, 『신천지』2호, 1946년3월1일~1권5호, 1946년6월1일.
 8) 해방기에 발간된 여성 잡지로는 대표적으로 좌파적 성향의 『여성공론』, 『여성문화』 이외에 『부인』, 『여학원』, 『부인경향』, 『신소녀』, 『명기계(名妓界)』 등이 발간되고, 『가정신문』, 『여성신문』, 『부녀신문』, 『부녀일보』, 『부인신보』 등 여성신문이 발행된다. (당시 발간된 여성 신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자라가는 우리 여성, 숫자로본 약진실태- 여성관계 출판물 일간 4, 월간 9, 여성문화의 꽃은 피기 시작했다.」, 『여성신문』, 1947. 6. 17.; 박용규, 「미군정기의 여성신문과 여성운동」, 『한국언론정보학회』, 통권 19호, 한국언론정보학회, 2002.11. 참조)
 9) 해방기 여성들의 정치활동에 대해서는 이승희, 「한국여성운동사 연구 : 미군정기 여성운동을 중심으로」, 『梨花女大 박사학위논문』, 1991 참조.

건설 이후에는 몇몇 우익 여성을 제외하면 더 이상 여성이 정치적 주체가 되기 힘들어진다. 더군다나 우익여성들의 정치적 슬로건은 가정 내부에서의 안정이 곧 국가건설에 복무하는 길이라는 가정담론의 틀에서 벗어나 있지 않기 때문에 여성해방의 이념과는 다소 먼 행보를 보이고 있다.¹⁰⁾ 국가건설 이후에는 이러한 기조가 더욱 강화되고 전쟁 이후에는 여성이 혁명의 주체가 아닌, 피해자로 각인되는 시대, 수난의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것이다.¹¹⁾ 그리하여 이 시기 이후 여성혁명가의 형상은 1980년대 민중문학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¹²⁾

해방 직후 수많은 매체의 기사와 문학 텍스트는 여성혁명가들의 귀환과 활동, 환희와 비극의 순간을 기록하고 있다. 늘 그렇듯, 국가건설의 과업에 매진해야한다고 거리로 나왔던 많은 여성들의 목소리가 만족할 만큼 형상화된 것은 아니다.¹³⁾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방기에는 텍스트에 여성투사들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시대이다. 근대국가 건설에 남성과 함께 여성이 파트너로 참여하여 공통의 목적을 위해 고군분투했던 형상은 매우 소중한 것이다. 그 안에는 환희

10) 해방기 보수적 성향의 신문 『여성신문』 등의 주요 지면이 가정란으로 꾸며진 것은 이러한 점을 증명한다.

11) 대한민국 국가 건설 이후에 여성은 더 이상 혁명의 주체로 등장하지 않는다. 대신 수난사가 그 공백을 메꾸어 나간다. 이는 남성중심의 대한민국 건국사의 이념적 기반과 관련이 깊은 것이다. 전후 여성수난사의 형상이 대한민국 반공주의, 남성중심의 국가건설 이데올로기에 어떻게 봉사했는지는 권명아, 『가족이야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책세상, 2000 참조.

12) 이는 해방기 여성혁명가의 형상이 1970~1980년대 민중 문학에서 드러나는 여성혁명가 형상의 기원임을 추측할 수 있게 한다. 1980년대 여성노동자의 형상, 민중시에 등장하는 누이, 어머니의 형상이 해방기 문학 텍스트 내부에서 이미 형상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가 홍희담의 『깃발』에 등장하는 형자, 순분 등 여성노동자의 형상이다.

13) 일례로 김남천의 소설 『1945년 8.15』에 나오는 여성 주인공 문경은 남성주인공에 의해 교화되어 혁명투쟁 전선에 나서는 인물일 뿐 스스로 자각하는 주체적인 인물로 그려져 있지 않다.(김남천, 『1945년 8.15』, 작가들, 2007 참조, 이해령, 앞의 글 참조.)

에서 좌절까지 다양한 형상들이 존재하며, 그 안에서도 미세한 변화가 일어나기도 한다. 이러한 변화는 곧 이 땅 정치사의 굴곡과 함께 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건국기 남성 중심 정치 서사, 그 분열 과정의 또 다른 거울이었다.

2. 여성 혁명가의 귀환 - 혁명을 꿈꾸는 여성들

해방기 신문 『독립신보』¹⁴⁾에는 ‘여류혁명가를 찾아서’라는 기획 하에 7명의 여성혁명가들이 소개된다. 여기에는 정철성, 유영준, 박진홍, 유금봉, 허하백, 이계순, 조원숙, 김명시가 등장한다.¹⁵⁾ 이들은 모두 식민지 시대 대표적인 여성혁명가들로 이 기획 기사는 그들을 인터뷰한 내용을 실은 것이다.

많은 여성혁명가들이 귀환했지만, 가장 큰 환영을 받았던 사람은 여장군 김명시였다. 이 시리즈에서도 김명시(金命時)에 대한 소개가 대미를 장식한다. 여장군 김명시의 위용은 그가 박헌영과 함께 식민지 시대 비전향 혁명가의 대명사였던 오빠 김형선의 동생이라는 점, 그리고 당시

14) 『독립신보』는 1946년 5월 1일 창간된 중도좌익지이다. 고문에 여운형, 백남운, 사장 장순각, 주필 고경흠, 편집국장 서광제, 편집위원 안덕근, 조인상, 안찬수, 김찬승, 이강성 등. 좌파 내 반박헌영계열의 입장을 반영하는 신문이다. 좌우합작에 지지를 표명하며, 박헌영계열의 활동에 비판적 논조를 보이고 있다. (윤덕영, 『자료소개 해방 직후 신문자료 현황』, 한국역사연구회, 『역사와현실』, 제16권 1995.6)

15) 이 기획에 실린 기사는 『조선의 남편들이여, 여성계몽에 힘쓰는가? -정철성여사편』, (『독립신보』(이하 생략), 1946.11.14.), 『부부가 단결하여 혁명의 기초 세우자-박진홍여사편』, (1946.11.15.), 『근로대중에 완전한 자유와야 여성에게도 완전자유온다-유금봉여사편』, (1946.11.16.), 『내게 독점되기 전에 그이는 민족의 애인-허하백여사편』, (1946.11.17.), 『폭동이래도 좋고 소동이래도 좋지만, 살여는 권리를 달라-유영준여사편』, (1946.11.18.), 『위장병쯤이 무엇 대열에 앞장서겠다-이계순여사편』, (1946.11.19.), 『폭풍전야에 헤어져 기다릴 길 없는남편-조원숙 여사편』, (1946.11.20.) 『이십일년간투쟁생활-태중에도 감옥사리- 김명시여사편』, (1946.11.21.)이다.

박현영, 김일성 혹은 그 이상의 명망을 얻고 있었던 조선의용군 총사령관 무정(武亭) 장군의 부관이었던 사실에서만 출발하는 것은 아니다. 김명시는 무정 장군처럼 팔로군에 소속되어 직접 일본군과 여러차례 전투를 치른 조선의용군 여자부대의 대장이었다.

시인 노천명¹⁶⁾은 1946년 3월 『신천지』에 김명시 장군을 소개하는 글을 쓴다.

옥루몽의 일지련이 부럽지 않게 아녀자의 몸으로 전장에 나가 공을 세우고 도라온 여장군이잇스니 그는 경상남도 마산 출신의 김명시 여사이다. 그는 이번에 팔로군에 종군하야 직접 일본군을 못찌루고 일본이 항복하자 금의환향한 개선장군이다. 여사가 오늘을 가져오기까지에는 가지가지의 애화도 석거잇스니 소설과 가튼 실화를 드러보기로 하자(중략)

팔로군에서 활약

다시 해외로 나온 여사는 천진, 제남, 북경, 태원 등지로 팔로군 구역에서 활약하게 되었다. 물샐틈없는 일본군의 경계망과 스파이에게 들키지 안케 하기 위하여 변성명과 변장을 해가며 어쨌든 일본을 타도 식히기 위해 생명을 내걸고 문자 그대로의 혈투였다.(중략)

제일선 적군 부대란 가장 위험한 구역이다. 언제나 목숨을 노리는 스파이가 총을 가지고 뒤를 따르는 곳이다. 그러나 남아에게 지지 않는 여사는 언제나 남자군인들과 똑같은 행동을하는 것이었다. 나가서 총칼을 들고 싸움을 하고 군대 숙소로 도라오면 또 남자들과 같이 산에 올라가 여자군인들과 더불어 나무를 해오고 하는 것이었다. 여자부대는 언제나 김명시 장군이 지휘를 하게 되었다.

여자군인들이 해오는 나뭇짐은 으레히 남자들의 것보다 나뭇단이 적어

16) 시인 노천명은 문학소녀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지만, 해방기와 한국전쟁 당시 좌파적 활동을 했던 경력을 갖고 있다. 해방기에는 여성신문 중 좌파적 성향이 강했던 『부녀신문』의 편집국 차장을 역임한 경력도 있으며, 문학운동단체인 조선문학가동맹의 회원이었다. 이러한 점은 이 시인에 대한 평가에서 다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부녀신문』은 1946년 5월12일 발행되어 14호로 단명한 신문이다.

보인다. 그러나 다라보면은 으레히 여자들 것이 중량이 많이 나가는 것이었다. 즉 여자들은 차근차근해서 꼭꼭 잣기 때문에 보기에는 적어도 실은 많은 것이었다 그래서 여성이라고 해서 무슨 핸디캡을 갖는 것은 군대생활에서 도무지 있을 수 없는 것이다.(중략)

누가 이제 또 여자더러 약한 자라고 할 것이냐.¹⁷⁾

해방 후 김명시 장군이 무정장군과 함께 경성 거리를 말을 타고 행군했던 장면을 영광스러운 일로 기억하는 이가 있었던 것을 보면¹⁸⁾, 이 여장군은 거의 신화에 가까운 존재였다. 장군이란 호칭도 여기서 기인한다. 조선의용군 여자부대는 남성들과 똑같이 의식주를 해결하고 전투를 했던 부대로 유명하다. 이를 증명하듯 『독립신보』에 실린 인터뷰와 노천명의 글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주제는 ‘누가 이제 또 여자더러 약한 자라고 할 것이냐.’는 항변이다. 김명시 여장군은 “언제나 남자군인들과 똑같이 “나가서 총칼을 들고 싸움을 하고 군대 숙소로 도라오면 또 남자와 같이 산에 올라가 여자군인들과 더부러 나무를 해오고 하는 것이었다.”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남성과 동등하게 혁명투쟁을 수행하는 혁명가의 형상, 이는 많은 여성들이 꿈꾸는 여성투사의 상(像)인 것이다. 김명시 여장군의 형상은 노천명에게도, 해방기 여성 독자들에게도 ‘여성’ 혁명가가 아닌, ‘혁명가’라는 신화 그자체로 존재한다.

이렇게 남성들과 동등하게 싸운 여성혁명가라는 형상은 중국여성혁명가들에 대한 관심에서도 드러나는 것이다. 한 기사는 주더(朱德)의 부인 캉 커칭(康克清)을 묘사하면서 “여자군의 여걸들”이며, “여자군은 일찍 일본군이 선전하듯이 전선의 도색꽃다발이 아니라 남자와 조금도 다를

17) 노천명, 『팔로군에 종군했던 김명시 여장군의 반생기』, 『신천지』 1권 2호, 1946. 3, 181~185쪽.

18) 남조선노동당 당원으로 6·25 전 입산한 ‘구빨치’였던 한 늙은 스님의 회고이다. 「태중(胎中)에도 감옥살이」 여류혁명가 김명시, 『위클리경향』 798호, 2008 11.04일자 참조.

바 없는 병사인 위에 또 어린 것들의 어머니로서 이중의 부담을 해야하는 남녀동등의 산 예증이였다.”¹⁹⁾고 소개한다. 이는 “남녀동등”이 당대 여성혁명가들이 추구하는 운동의 기본 요건이자 목적이었다는 점을 알려준다. 물론 기사가 묘사한 상황에서도 ‘남녀동등’이라는 표현은 적합하지 않다. 이 구절에서도 증명하듯, 여성혁명가들은 남성혁명가들과 달리, “병사인 위에 또 어린 것들의 어머니로서 이중의 부담”을 해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여성혁명가는 슈퍼우먼이 되어야 ‘남녀동등’한 투쟁을 하였다고 평가받을 수 있었던 것이며, 이러한 점이 여성독자들에게 더욱 큰 연민과 공감으로 작용했던 것이다.

이외에도 좌파 여성단체인 조선부녀총동맹(이하 부총(婦總))²⁰⁾의 위원이었던 유영준 외에 주세죽, 박진홍, 허하백 등 여성혁명가들의 형상은 식민지 시기 투쟁의 정통성 내부에 여성들을 위치시키는 데 기여한다. 잠시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자.

1944년 10월9일 함께 10년의 마지막 감옥사리가 끝나고 김태준씨와의 사랑이 맺어졌으나 보금자리를 구해서 옥창의 피로를 쉬일 수 있는 것은 혁명가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회고 패리한 두 분은 손을 맞잡고 그해 11월 23일 걸어서 연안가는 길을 떠났고 해방이 되자 다시 걸어서 그 먼 길을

19) 최의경, 「중국공산군내의 여병사의 활동」, 『민성』13호, 1947. 1, 13쪽.

20) 해방 후 결성된 좌파 여성 운동 정치 운동 단체이다. 해방직후 친일경력을 불문하고 여성계 인사들이 모두 모여 결성된 건국부녀동맹에서 미군의 진주 이후 민족주의계의 김활란·임영신·유각경 등이 탈퇴하자, 좌파 인사들이 모여서 1945년 12월 22일 결성한다. 이들은 봉건 잔재와 친일 잔재를 척결하고 민주적 자주독립국가 건설과 여성해방을 위해 힘쓸 것을 다짐했다. 행동강령으로 조선여성의 완전한 해방, 조선여성의 국제적 제휴, 여성의 경제적·정치적 평등권의 획득, 생활개선 등의 많은 강령을 내세웠다. 이 조직은 결성되자마자 문맹퇴치운동과 함께 진보적 민주국가의 성립을 위한 선전계몽활동이라는 것을 내세웠다. 그밖에 공사창제도폐지운동, 쌀 배급을 요구하는 투쟁을 전개했으며, 좌익노선대로 모스크바3상회의의 신탁통치를 지지하는 운동을 전개해갔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승희, 앞의 글 참조)

돌아온 부총서울시위원장 박진홍여사는 아직도 얼굴이 몹시 패리하고 끊임없이 가슴이 결린 증세가 있다고 한다... 연안서 떠나올 때 임신 만삭이 었드랬어요. 나는 말을 타고 남편은 걸어서오는데 열화성 「란편」이라는 데서 오후 일곱시에 해산을 했지요.

1932년 이재유씨와 함께 지하운동을 하면서 동거생활로 들어가 옥중에서 아들이기를 내었으나 불행이도 죽고 이번 노상에서 나온 아드님은 잘 자라난다고 한다. 그러나 부부가 이리고 다니느라 가정적인 단란한 맛은 통없어요. ...난 문학소녀였고 사회생활이란 그리 오래되지 못했어요. 10년의 감옥생활을 빼면 이제 겨우 스물세살이니까요. 그래서 이따금씩 꿈을 그리다가 현실앞에 깜짝놀라곤 해요.²¹⁾

근로대중에 완전한 자유가 오는 날에만 여성에게도 완전한 자유가 올 것입니다.²²⁾

숙명학교에 들어선 일인선생 배적스트라이크를 한번했구요. 내량(奈良) 고사(高師)에 가서 이과를 전공했는데 「상림(上林)」이라는 선생과 함께 경도제대공산당사건에 관계해서 독서회를 하다가 모두 체포되었는데 증거물을 연멸시키기 위하여 신문지석장을 다 뜯어먹어버리느라고 아주 혼이 난 일이 잊어지지 않아요.²³⁾

이들은 식민지 시대 자신들의 투쟁담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향후 해방정국에서 자신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한다. 남편이 김태준과 함께 연안을 오가면서 혁명 투쟁을 했던 박진홍, 식민지 시대 대표적인 여성노동자 투사인 유금봉, 공산당원이자 조각가인 김복진의 부인으로 독서회 사건 등으로 옥고를 치른 허하백, 기생출신 여전사로 유명한 정철성 등 이들의 투쟁경력은 식민지 시대 이들의 명망만큼 화려하

21) 「부부가 단결하여 혁명의 기초 세우자-박진홍여사편」, 『독립신보』, 1946.11.15.

22) 「근로대중에 완전한 자유와야 여성에게도 완전자유온다-유금봉여사편」, 『독립신보』, 1946.11.16.

23) 「내게 독점되기 전에 그이는 민족의 애인-허하백여사편」, 『독립신보』, 1946.11.17.

다. 이들의 투쟁의지는 옥중에서 해산을 하는(박진홍, 김명시 등) 등 여러 고난에도 불구하고 꺾이지 않았다. 특히 이들의 옥중 고난은 친일의 멍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우익 여성 독립 운동가들에 비할 때 순수한 혁명적 혈통성을 증명해 주는 것이었다. 1945년 12월 26일 조선부녀총동맹 결성식장에서는 ‘견결하게 투쟁을 이어나 여성’들로 허정숙, 김명시, 박진홍, 이순금에 대한 환영 박수의 시간이 있었다. 이들은 식민지 말 친일의 사도인 ‘군국의 어머니’가 되는 대신 중국에서 무장투쟁을 하거나(허정숙, 김명시), 국내에서 경성 품그룹으로서 지하운동을 계속해 왔던(박진홍, 이순금)²⁴⁾ 이들이기 때문이다.

물론 해방기에는 이들 좌파 여성혁명가들의 투쟁담 이외에도 우파 여성들의 활동상도 소개된다. 우파 여성들의 활동상은 3·1운동 참여기라는 형식으로 소개된다. 황애덕²⁵⁾, 박순천²⁶⁾ 등 향후 우파 여성단체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 여성들의 투쟁담은 44년 타개로 미처 돌아오지 못한 박마리아의 애통한 소식을 전하는 것으로 그 공감대를 극대화시킨다. 그러나 이들의 투쟁담은 ‘회고’로 목숨을 담보로 투쟁했던 좌파 여성 혁명가의 활약, 혹은 옥중수난기에 비해 그 빛이 강렬한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박순천, 김활란, 모윤숙 등 우파 여성들이 주로 친일의 멍에에서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이 자신들의 정통성을 증명하는 길은 3·1운동의 회고라는 방식밖에 없었던 것이다.²⁷⁾

24) 이상경, 「1930년대 사회주의 여성에 관한 연구」, 『성평등연구』 제10집, 2006, 59쪽 참조.

25) 황애덕, 「3·1운동과 여성의 활약」, 『신천지』 1권 2호, 1946. 3, 142~148쪽

26) 「박순천, 내가 겪은 3·1운동: 일 여자 독립운동자의 회고」, 『신천지』 1권 2호, 1946. 3, 34~36쪽

27) 유관순이라는 여성 투사의 형상 역시 우파 정치인들이 3·1운동을 자신들의 역사로 전유시키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종현, 「유관순 표상의 창출과 전승」, 『한국문학연구』, 제36집,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9.6 참조.

이들 여성혁명가들은 혁명가들답게 인터뷰에서 해방 이후 자신들의 정치적 포부를 밝히는 일도 잊지 않는다. ‘근로대중에 완전한 자유가 오는 날에만 여성에게도 완전한 자유가 올 것’이라면서 향후에도 노동운동에 헌신할 것을 암시하는 유금봉의 의지는 매우 견고해 보인다.

그리고 이들의 인터뷰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민주적인 가정을 꾸리는 문제였다.

이중삼중으로 억눌리고 질식하는 여성들의 운명은 언제까지든지 기구만 하구려. 정치적인 압력은 우리들의 직접적인 투쟁대상이니까 말할 것도 없지마는 더욱 절박한 고통을 주는 건 소위 민주진영의 일꾼들까지 가정내의 민주주의는 영 모르고 안해를 계몽하지 않고 독서나 집회를 위해서 시간을 주지않고 이러곤 여성운동이 활발하지 못한 것만 개탄을 하잖아요.²⁸⁾

가정은 꼭 민주주의적이긴 합니다. 서로 다 혁명운동에 이해가 있지요. (중략)우리 부녀운동이 물론 봉건도덕에 억매여버리는 극우적인 현상도 잘못이지마는 너무 가정을 경멸 파괴하고 남편을 투쟁대상으로 삼는 것은...오류예요. 현대계에서는 부부가 단결해서 혁명의 기초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혁명을 위한 부부에 그건 가장 이름답게 여겨졌다.²⁹⁾

스물일곱살에 『근우회』함남책임자로 그 다음 청년동맹여자부에서 지금은 없지못할 부총 간부로 47세이건만 여자의 주먹은 아직 튼튼해 보인다. 더구나 여사는 이런 혁명적인 성격이면서도 2남1녀를 가진 이상적인 『주부』라고 한다³⁰⁾.

가정 내의 민주주의를 등한시 하는 남성혁명가에 대한 정철성의 가차

28) 『조선의 남편들이여, 여성계몽에 힘쓰는가?—정철성여사편』, 『독립신보』, 1946.11.14.

29) 『부부가 단결하여 혁명의 기초 세우자—박진홍여사편』, 『독립신보』, 1946.11.15.

30) 『근로대중에 완전한 자유와 여성에게도 완전자유온다—유금봉여사편』, 『독립신보』, 1946.11.16.

없는 질타, 그리고 부부가 단결해서 혁명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박진홍의 모습은 가정에서부터 남녀평등의 민주주의적 질서를 갖추고자 하는 그들의 열망을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투사이지만, 이상적인 주부상을 강조하는 유금봉의 인터뷰는 슈퍼우먼 콤플렉스를 연상시키지만, 여기에도 혁명적인 성격의 투사 어머니상을 창출하려는 의도가 먼저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이재유의 하우스키퍼³¹⁾로 활동하다가 대신 체포되고 그가 체포된 이후에도 대중들의 질타를 두려워하여 그에게 그 존재 자체를 부정당했던 박진홍의 모습이다. 하우스키퍼로 자신의 존재성마저 부정당해야 했던 식민지 시절의 여성 사회주의자가 정당하게 혁명가인 남편과 가정을 꾸미고 인터뷰를 하는 장면은 해방이 이들에게 단지 출옥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었다는 점을 알려 준다.

돌아온 혁명가들은 당시 여성 운동 단체인 부총의 일원으로 활동하면서 민족해방, 국가건설, 여성해방의 현장에서 맹렬히 활동한다. 다음은 당시 거리에 나붙었던 부총 결성 광고문이다.

여자는 남자와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여자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져야 한다. 동일 노동에 동일 임금을 받아야 한다. 여자도 남자와 똑같이 배울 권리를 가져야 한다. 일부다처제를 폐지해야 한다. 공창제를 없애야 한다.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정치적 권리를 주장하는 이들의 공고문을 보고

31) 감시의 눈을 피하고 숨이기 위해 사회주의 남성과 위장 동거한 여성을 말한다. 이는 공산당 내부에서 마련한 제도인데, 이 제도는 '남권사회의 여성별시 의식'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 비판받는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상경, 『1930년대 사회주의 여성에 관한 연구』, 『성평등연구』 제10집, 2006, 23쪽 참조; 장영은, 『특집 : 근대지식으로서의 사회주의와 그 문화, 문화적 표상 : 아지트 키퍼와 하우스 키퍼-여성 사회주의자의 연애와 입지-』, 『대동문화연구』 64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8 참조.

많은 여성들이 부총에 가입한다. 물론 향후 조선공산당 산하 단체로서 찬탁운동 등 정치적 활동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활동하게 되지만, 공창 폐지운동, 문맹퇴치 운동 등 여성운동 분야에도 전력을 기울인다.³²⁾ 당대 여성들은 당시 정치적 슬로건인 반제·반봉건·인민민주주의 혁명과 여성해방에 대한 열정에 들떠 있었다. 당대 매체에 실린, 소련 여성에 대한 관심도 당대 여성의 해방에 대한 기대감이 표현된 것이다.

우리 여성은 이제 해방을 위하여 싸우고 있지 않습니다. 실직이라는 것은 없고 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경제적 자유, 완전한 평등은 어떠한 시민에게나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느 여자나 다 시민이 되어있습니다.”³³⁾

소련 여성은 법적으로는 남성들과 ‘완전한 평등’을 이루었다고 바라보는 이들의 관점은 당대 지식인 여성들이 바라보는 이상적인 여성 해방의 상(像)이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증명한다. 다른 글에서도 ‘그들은 혁명 남자와 협력하여 제정 러시아 타도에 돌진하여 혁명 후 동등한 헌법상의 권리를 확인했’다고 하며, 이들에게 동경의 시선을 보낸다.³⁴⁾

그리고 이 글의 필자가 주목하는 것은 ‘경제적 자유’이다. 물질의 해방은 곧 정신의 해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경제적 독립은 남성으로부터의 예측을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토대인 것이다.³⁵⁾ 비록 이상적인 논제

32) 특히 공창폐지운동은 좌/우의 여성단체 모두의 공감하에 연대 하에 진행되었던 급진적 여성운동으로 그 의미가 깊다. (해방기 공창폐지운동에 대해서는 이니영, 『금지주의와 국가규제 성매매 제도의 착종에 관한 연구』, 『사회와역사』, 통권 제75집, 한국사회사학회, 2007.9 참조.)

33) 엘라 윈티, 『소련의 신여성』, 『신천지』 1권 4호, 1946.5.

34) 최화성, 『소련부녀의 현황』, 『신천지』 1권 4호, 1946.5.

35) 경제적 독립의 문제는 좌우파 여성 운동가들의 글 모두에서 자주 거론되는 담론이다. 이는 여성의 문맹률이 95%가 넘는 현실에서는 매우 파격적이고 이상적인 슬로건이었다고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부인의 직업전선진출은 사회적 진화의 방향이다』, 『여성신문』 창간호, 1946.5.21.)

이긴 하지만, 해방기에 이렇듯 여성해방의 원론적이고 다소 급진적인 논의가 가능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점이다.

그렇다면, 실제 당대 남한 여성 혁명가들의 의식은 어떠했을까? 1945년 12월 6일에 열린 부녀단체대표자대회의 취지문에서는 “조선민족의 역사적 대사명은 일본제국주의의 잔존세력과 봉건제도에 대한 단호한 투쟁이다. 이것없이 조선민중은 완전히 해방될 수 없고 부녀대중의 해방도 있을 수 없으며 부녀대중의 해방없이 조선민족의 완전해방은 있을 없다”는 문구가 나온다.³⁶⁾ 이들에게 조선민족의 해방과 부녀대중의 해방은 동급의 것이며, 동시에 이끌어내야 할 과제인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도 선후차의 문제가 제기된다. 해방후 극렬 좌파가 된 이태준은 『여성에게 보내는 말-선후의 분별』에서 ‘첫째, 민족의 완전해방, 둘째, 계급의 완전해방, 셋째, 여성의 완전해방’이라는 순차적 도식을 제기한다.³⁷⁾ 이원조 역시 현대 우리 여성들의 문제는 ‘결코 여성문제 독자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민족운명의 전체 속에서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지 아니하면 안될 것’이라고 정리한다. 계급해방, 민족해방을 곧 여성해방과 등치시킨다.³⁸⁾

이러한 상황이니 여성활동가들의 입장도 이러한 논리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부총의 주요 간부였던 이순금의 글이나 집행위원

36) 『해방일보』, 1945.12.6.(이승희, 앞의 글, 60쪽에서 재인용)

37) 이태준, 『여성에게 보내는 말-선후의 분별』, 『여성문화』창간호, 1945.12. 참조.

38) “현대 우리 여성들의 가정적위치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얼마나 뒤떨어졌다는 하는 것보담 그냥 노예상태에 얽매어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결코 여성문제 독자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민족운명의 전체 속에서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지 아니하면 안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결코 여성문제 독자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민족운명의 전체 속에서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지 아니하면 안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나라에 제일 많이 남아있는 봉건적잔재를 타파함으로써 우리 민족전체의 발전하는 가운데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지위가 향상되는 것입니다.” (이원조, 『여성과 문학』, 『여성문화』창간호, 앞의 책 참조.

장 이경희의 글에서는 “우리 조선의 완전한 독립, 완전한 민족적 해방, 완전한 민주주의적 주권의 수립의 과업이 실현되기 전에는 1천5백만 여성의 해방은 물론 생활개선도 지위향상도 가져올 수 없는 것이다.”³⁹⁾라고 한다. 결국 해방의 논리 내부에서 여성해방이라는 문제는 세 번째로 밀려난다. 비상시국이라는 토대는 여성 해방이라는 문제를 또 한번 부차화시킨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혁명가들은 이러한 토대에서 헌신하다, 해방된 조국에서 다시 옥중에 갇히는 비극적 상황에 처하게 된다.⁴⁰⁾ 탄압이 심해지자 김명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여성혁명가들은 월북하여 북에서 활동을 지속하게 되고,⁴¹⁾ 그리하여 더 이상 남한에서는 여성혁명가의 활동을 보기 힘들어진다. 김명시 장군은 1947년 이후 행적이 묘연하다.⁴²⁾ 혹자는 이승만에게 살해당했거나 월북했으리라 추측하지만, 북의 어떤 기록에서도 흔적을 찾을 수 없다. 그러나 연구자가 추측하기에 김명시 장군이 무사히 월북했다고 해도 1950년대 후반 반종파투쟁이라는 명분하에 북에서 진행된 조선의용군 일파의 숙청 과정에서 희생되었을 것이다⁴³⁾. 김명시 장군은 남겨두기에는 너무 큰 별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39) 이순금, 『조선여성에게』, 『여성공론』창간호, 1945.

40) 1946년 중반 정관사 위조 지폐 사건과 1946년 10월 인민 항쟁(대구 10·1 사건), 여순사건(10월)을 기점으로 미군정의 좌익 탄압이 본격화된다. 통제가 심해지자 여성운동의 합법적인 투쟁이 점점 불가능해졌으며, 급기야 1947년 8월 부총의 위원장 유영준을 비롯한 지도부가 구속되면서 여성운동 세력은 약화되었다.(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승희, 앞의 글 참조)

41) 여장군 김명시는 1946년 말경 행방불명된다. 1946년 12월부터 50년 9월까지 김명시라는 이름은 어떤 기록에도 보이지 않는다.

42) 해방되던 해 12월 조선부녀총동맹 선전부 일을 보다가 같은 달 조선국군준비대 전국대표자대회에서 축사를 하였고, 46년 2월 민주주의민족전선 중앙위원이 되었고, 4월 민전 서울지부 의장단으로 뽑혔으며, 12월 남조선민주여성동맹 선전부장이 된 것까지만 알려져 있다. 48년 8월 해주에서 열린 남조선 인민대표자대회에서 제1기 최고 인민회의 대의원으로 뽑힌 360명 가운데도 없다.(『위클리경향』 798호, 2008 11.04일자 참조.)

월북하지 않고 남아있던 여성혁명가들은 대한민국 건국이후 입산한 여성 빨치산이 되었다. 그 안에서도 ‘지리산 여장군’ 정순덕 장군이라는 제2의 김명시 장군의 활동이 펼쳐진다.⁴⁴⁾ 이들의 비극적 생애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도록 한다. 결국 김명시 장군도 여성 빨치산도 남에서도 북에서도 빛나는 별이기를 거부당한 비운의 여성혁명가였던 것이다.

3. 여성 혁명가의 형상과 가족 서사

-아버지의 부정(부채)과 ‘진보적인’ 어머니와 여성노동자 누이

해방기에는 여성혁명가들의 귀환이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되었던 것처럼 문학 작품에서도 여성혁명가들의 형상이 등장한다. 이 형상들은 주로, 공식적으로 혁명적 정치 활동이 불가능해지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전후한 시기 이전에 발표된 텍스트에 실려 있다.

3.1. 딸과 여동생, 여성혁명가의 등장

해방기 여성을 형상화한 소설 중 주목을 끄는 것은 해방 직후 『여성문화』 창간호에 실린 엄홍섭 소설 『새로운 아침』이다. 이 소설은 해방이 되자 “중등교육을 받은 자기와 같은 여자가 한 사람이라도 더 농촌으로 들어가 농촌사람들의 계몽을 위하여 활동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느

43) 반종파투쟁은 1956~1958년에 걸쳐 진행된다. 당시 김명시가 속해 있던 연안파, 즉 조선의용군 계열의 김창만, 박일우 등이 숙청되었다. 무정장군은 1950년에 사망한다.
44) 정순덕은 48년 끝 무렵 입산하여 63년 1월 16일 새벽 토벌대와 교전 끝에 다리에 총을 맞고 잡힌 마지막 빨치산이다. ‘지리산 여장군’으로 불리던 비전향장기수 정순덕은 2004년 숨졌다.(김동훈, 『마지막 빨치산』 정순덕 할머니 숨겨.”, 『한겨레』, 2004년 4월 2일 작성)

껴”, 농촌에 내려와 계몽활동을 하게 되는 영옥엄마가 주인공이다.

이 소설이 특별히 관심을 끄는 것은 그녀가 “남편을 서울에 남겨두고 자기만 시골로 내려”⁴⁵⁾왔다는 점이다. 영옥엄마는 흔히 남성 중심의 혁명서사에 등장하는 여성들처럼 남성들에 의해 의식적 각성을 한 수동적 주체가 아니라 남편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기 스스로의 결단에 의해 농촌행을 선택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이 소설은 특별히 이러한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마지막에 “남편은 서울서 자기는 농촌에서 이렇게 따로 떠러져 사라가면서까지 새 나라 새 건설을 위하여 정령을 바치지 않으면 안 될 역사적 사명에 영옥엄마는 가슴이 더 한창 설레이었다”고 서술한다. 이는 해방 직후에는 남성작가도 여성 주체성을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알려주는 것이다.

특히 해방 직후 국가건설 운동을 위해 서울로 몰려가는 당대 청년들⁴⁶⁾과 비교해 볼 때, 오히려 소외된 정치 공간인 농촌에서 계몽활동을 하는 주체가 여성이라는 점은 권력지향적인 남성과 대비되는 여성적인 품성을 강조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소설에서 주인공은 중등교육을 받은 지식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없다. 단지 영옥엄마로 호명될 뿐이다. 이러한 점은 향후 해방기 소설에 나타난 여성 형상이 어떠한 것이라는 점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홍구의 소설 『소성어머니』에는 혁명가인 여성노동자 자매가 등장한다.

45) 엄홍섭, 『새로운 아침』, 『여성문화』창간호, 1945.12., 47쪽 참조.

46) 이러한 청년 형상이 등장하는 또 다른 소설은 류리섭(柳理燮), 『신인창작 - 지주의 아들 진실성』, 『신천지』, 1947.8.1.이다. 이 소설에서도 주인공은 국가건설운동에 복무하기 위해 무작정 서울로 올라갔다가,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 야학활동을 하게 된다.

큰 딸은 열어덜이 되자, 좋은 혼처를 구해 시집을 보내려고 하든 해에 제사공장에서 무슨 일이 났다고 경찰서에 걸리여갓다가나온다음 한달이 멀다고 형사들이 오고, 두달이멀다고 방천정까지 벽까지 장독속까지 뒤지 여보며 붓잡아가든 큰 딸은 감옥에서 삼년만에 나오자 몇 달이 못되여 어대로인지 가버리여 가슴에 못을 박고 잠않오는밤이면 눈시울에서 떨어지지 앓은딸인가하고 눈물을 참아가며 나머지 아들과 딸들의 모락모락자라는 것에 맘을 붙이며(하략)⁴⁷⁾

이 인용 텍스트는 제사공장에 다니다가 노동쟁의로 3년 감방 생활을 하고, 석방 이후에도 지하 활동을 위해 집을 떠난 큰 딸 이야기이다. 이 소설에서 어머니의 딸인 현숙과 인숙 자매는 노동운동을 수행 중이다. 먼저 현숙이 혁명 운동에 가담하고 함께 운동하는 남성과 결혼한 후, 지하운동을 위해 숨고, 동생 인숙에게 동료 양순과 형부 김을 보내 의식화시킨다. 그런데 김과 만나는 광경을 보고 동네 사람들이 인숙이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고, 화냥년이라고 말이 많다. 그러나 인숙은 진실을 밝히려는 어머니의 눈물어린 호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수모와 고통을 참고 끝까지 비밀을 지켜낸다. 이처럼 이 소설은 여성혁명가의 귀환 이전의 활동상, 비합법 지하운동 주체의 내면적 고통을 강조한다. 그런만큼 귀환은 감격적인 것이 된다.⁴⁸⁾ 과연 이 소설의 마지막에는 현숙의 귀환이 극적으로 형상화된다.

47) 한구, 『소성어머니』, 『인민』2, 1946.1., 118쪽 참조.

48) 이 소설은 식민지 억압에 의해 수난을 겪었던 자들이 가정으로 돌아오는 해방기 귀환의 전형적인 서사 문법을 따르고 있다. 이해령은 해방기 식민기억이 서사화되는 방식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해방기의 가장 감동적인 내러티브가 죽어서야 당도한 자들, 해방이 되고 나서야 돌아온 자들이라는 내러티브라는 점을 확인한 바 있다. 이육사와 운동주의 비극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이러한 서사에서 여성들은 돌아온 남성들의 부차적인 존재로 의미화된다.(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해령, 『‘해방기’ 식민기억의 한 양상과 젠더』, 『여성문학연구』Vol.19, 2008.참조)

우렁찬 소리다 씩씩한 노래다 노래와같이 많은 장정의 힘있는 구두소리
 힘찬 젊은이의 기쁨의 넘치는 노래다 그곳에 석진 가느다라코 맑고강한녀
 인의 노래 그것은 소성어머니의 딸 현숙의 노래다. 맨앞에 뚜렷이 빛나
 는 태극기를 들고 잃어든 내동리의 땅을 발부며 잊었던 내어머니의 품을
 차저든다. 소성어머니는 낫을 잃은 사람모양으로 분명한 자기딸을 한참바
 라보다가야. 『우리현숙아』하고 부둥케 안았다. 동리젊은 청년동맹원은 내동
 리의 자랑 젊은여투사를위하야기를 흔들며 노래부르며 만세를 불렀다.⁴⁹⁾

이 구절에서 금의환향하는 현숙은 ‘맑고 강한 녀인’이다. 그리고 청년
 동맹원과 젊은 여투사인 현숙, 인숙은 서로 동지이다. 해방의 감격은 여
 성이든 남성이든 할 것 없이 모두 동지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이다.

김상훈의 서사시 『가족』에서도 혁명가의 딸이 등장한다. 여기서는 주
 인공 복레는 ‘여성노동자’이다.

“나는 농노의 딸이올시다/지주의 수욕(獸慾)에 짓밟혔습니다/몸동아리
 를 팔아서도 가세는 점점 가난해 갔습니다./실공장에선 증생처럼 사역되었
 습니다./약공장에선 손발이 모도 썩었습니다.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므로/잔인한 착취자에 우리는 반항합니다./반
 항 속에서만 우리들의 목숨은 빛날 것입니다……“(중략)/사랑이고 그런 것
 보단/민주주의만이 내겐 소중합니다./연애를 부정하진 않습니다./그러나 우
 리에겐 흔히 방해스러우니까요/만용과 이기주의는 애인을 안고/소시민의
 주택으로 도망가 버리니까요/사랑 때문에 일을 잊어버리고/동무를 팔고 조
 직도 파괴해 버리니까요/인민의 승리 없이 무슨 행복이 있을라구요……

우리들의 길동무가 되려면/다만 한 가지 민주노선을 걷는 것뿐일 겹니
 다/나도 연일 피로워했습니다/운명의 해후를 원망했습니다/그러나 결론은
 내렸습니다./사랑하던 이여 우리들의 청춘을 걸어/연애보다 먼저 혁명을
 배웁시다……

49) 한구, 앞의 글, 128~129쪽 참조.

여기서 복레는 소작농 무산계급 출신의 영등포에서 근무하는 여성노동자로 지주의 아들 위우(渭雨)를 사랑했지만, 한 때 그의 아버지인 지주의 노리개로 팔렸다가, 이후 공장지대에서 의식화되어 혁명투쟁 전선에 섰던 여전사이다. 해방이 되자 그녀는 혁명전선에 서서 오히려 위우를 혁명의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해방 이후 인민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정치 노선에서도 노동자는 핵심적인 혁명주체였다. 그러므로 여성노동자의 형상이 대표적인 여성혁명가의 형상인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 시기 여성노동자는 “여성해방의 중심이요 가장 강력한 전위부대”라는 점이 강조되고 여성노동자는 국가건설, 여성해방, 무산자 해방의 전위로서 불려졌다.⁵⁰⁾

물론 소설에서 모든 여성노동자의 형상이 복레처럼 전위적인 것만은 아니다. 이동규의 『오빠와 애인』⁵¹⁾에서는 여직공이 등장한다. 여직공 재순은 해방이 되자 그 기쁨에 들떠 있다. 그런데 노동자 공동의 공장접수 운동을 하는 중 블루카라 노동자인 오빠와 화이트카라 노동자인 애인 이 갈등을 일으키고 그녀는 이러한 상황을 곤혹스러워한다. 물론 블루카라 노동자인 오빠의 입장을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계급성을 체득하고 있는 인물로 보이지만, 다친 애인에게는 금방 연민을 느끼는 마음 약한 존재이다.

오빠의 주장하는 것은 다수자의 행복이었다. 열에 여덟사람이 행복할수 있다면 둘을 버리고 여덟사람을 위한 길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그것이 역사의 필연인 방향이라면 더 말할 것도 없다는 것이다. (중략) 나는 오빠를 존경하는 동시에 병찬씨도 존경한다. 두 존경하는 분의 생각이 같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기쁜 일이다. 나는 병찬씨를 사랑하고 있다. 내가

50) 이입하, 『특집 : 역사 속의 여성노동: 해방 뒤 국가건설과 여성노동』, 『역사연구』 제15호, 역사학연구소, 2005.12.

51) 이동규, 『오빠와 애인』, 『신건설』, 1945.

사랑하는 분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더욱 기쁜 일이다.⁵²⁾

이렇듯 이 소설은 마음 약한, 소위 ‘여자마음’을 지닌 여성상은 강고한 신념체계를 지닌 인물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시킨다. 여성노동자 주인공은 노동쟁의의 주체로 나서는 인물이기보다는 이 두 사람의 갈등 상황을 안타깝게 지켜보는 인물일 뿐이다.⁵³⁾ 물론 이러한 진술 내용의 한계는 이미 누이가 화자로 등장하여 오빠와 애인의 투쟁 상황을 형상화한다는 데서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기도 하다. 누이는 화자로서, 여린 마음의 증재자로만 존재하지 서사의 주인공은 아닌 것이다. 그러나 주인공은 아니라고 해도 적어도 이 소설에서 여성주인공은 대립이 아닌 관용과 화해의 상징으로 존재한다. 이러한 점은 작가가 ‘의도하지 않았던’ 여성혁명가 형상의 또 다른 일면인 것이다.

또한 앞서 설명한 여성 혁명가의 서사에도 한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소성어머니』에서 흥미로운 것은 인숙이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고 포함한 친구 옥희의 존재이다.

옥희란년이 그 공장사무실에 있는 일본녀석하고 연애니 사랑이니 안방이니 하다가 이렇게 우리조선이 독립이 되니깐 공장아이들이 놀린답디다. 『일본이 망해서 어쩌나 옥희시집못가겠네 요새는 안보고 싶으나』하고 그러는 판에 오늘은 ..사랑할 사람이 없어 왜놈하고 사랑을 해 더럽다하고 서로 길가에서 싸운 모양⁵⁴⁾

52) 이동규, 앞의 글, 52~53쪽.

53) 다른 해방기 소설에서도 이러한 ‘여자마음’이 국가건설의 강고한 신념체계와는 다른, 걸림돌로 형상화되어 있다. 해방기 소설에 드러난 ‘여자마음’의 서사에 대해서는 류진희, 『염상섭의 『해방의 아들』과 해방기 민족서사의 젠더』, 『상허학보』 27집, 상허학회, 2009.10. 참조.

54) 한구, 위의 글, 126쪽 참조.

옥히는 일본남성과 연애를 하는 조선여성이다. 그런데 인숙이 이를 비난하자 옥히가 화김에 인숙이도 연애를 하고 돌아다닌다고 모함한 것이다. 남자면 다 남자지 일본놈이든, 조선놈이든 무슨 상관이나는 것이다. 여기서 옥히는 식민주의의 상징이 되며, 인숙은 저항의 상징이 된다. 혁명가 인숙의 순결성을 보장해주는 것은 매국으로 간주되는 옥히의 일본남자와의 연애 행위다. 그렇다고 해서 조선남자하고의 연애가 인정된 것은 아니다.

본래 연애라는 사적인 행위는 혁명적 활동과 대척적인 지점에 놓인다. 즉 혁명의 길은 사적 영역의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순결한 길이라는 도식적인 구도가 여기서도 적용된 것이다. 때로 이 논리는 남성혁명가에게는 사랑했던 여성을 부정하는 비겁한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관념은 여성에게는 다른 부면에서 가혹하게 적용된다. 식민지 시대 사회주의 여성을 성적방종자로 치부하여 사회적으로 매장시켰던 남성중심의 논리⁵⁵⁾를 기억한다면, 해방 이후에도 이러한 관념이 여성혁명가 형상을 압박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 소설에 의하면, 여성혁명가는 남자를 만나서도 안 된다. 여주인공 인숙의 ‘어머니 나는 깨끗한 처녀요 그것을 이는 이는 하늘과땅 그리고 알사람은 단둘이 있소. 어머니도 몰르오’란 독백은 이들의 강박된 내면 의식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가족』에서도 한 때 사랑했던 남자 위우에게 ‘연애보다 먼저 혁명을 배운시다’라고 단호하게 말한 복례의 태도 역시 이러한 관념이 적용된 예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소설은 굳이 남성들의 매국행위가 아니라 같은 여성의 행위와

55) 식민지 시대 일제는 여성사회주의자들을 대중과 격리시키기 위해 그녀들이 혁명을 위해 사랑이나 정조관념을 중시하지 않는 게니아니즘(콜론타이의 『삼대의사랑』의 세 번째 여주인공)을 신봉한다고 악선전을 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상경, 앞의 글, 25~26쪽 참조.

비교함으로써 여성 혁명가들의 순결성을 증명한다. 여성들의 혁명 성과는 남성들과는 비교하지 않는다는, 남성 중심적인 도식이 적용된 것이다.

3.2. 새로운 가족 서사-아버지의 부정(부재)와 진보적인 어머니 상

여성혁명가가 등장하는 해방기 텍스트에서 주의해서 보아야 할 것은 바로 이들 여성 혁명가의 형상이 모녀, 자매, 남매라는 가족관계의 테두리 안에서 형상화된다는 것이다. 김상훈의 시 『아버지의 창 앞에서』는 당대 청년 혁명가와 아버지의 관계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텍스트이다.

등짐지기 삼십리길 기어 넘어가쁜 숨결로 두드린 아버지의 창 앞에/무서운 글자있어 ‘공산주의자는 듣지 말라’/아아 천날을 두고 불러왔거니 떨리는 손 문고리 잡은 채/물끄러미 내 또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고(중략)
 징용살이 봇짐에 울며 늘어지든 어머니/형무소 창구명에서 억지로 웃어 보이던 아버지/머리 쓰다듬어 착한 사람되라고/옛글에 일월(日月)같이 뚜렷한 성현의 무리되라고/삼신판에 물 떠놓고 빌고, 말 배울 적부터 정전법(井田法)을 조술(祖述)하느니/이젠 가야할 길 미더운 깃발 아래 발을 맞추려거니/어이 역사가 역류하고 모든 습속이 부패하는 지점에서/지주의 만아들로 죄스럽게 늙어야 옳다 하시는데/아아 해방된 다음날 사람마다 잊은 것을 찾아 가슴에 품거니/무엇이 가로막아 내겐 나라를 찾든 날 어버이를 잃게 하느냐/(중략)/낯고 불순한 생활 헌신짝처럼 벗어버리고/저기 붉은 기폭 나무끼는 곳, 아들 아버지 손길 맞잡고/이 아침에 새로야 떠나지는 못하려는가 ……

-김상훈, 『아버지의 창 앞에서』 중 일부-

이 시에서 시인은 이제 ‘나라를 찾든 날’ ‘아들 아버지 손길 맞잡고’ 새 나라 건설에 나가고 싶건만, 이러한 일이 쉽게 허락되지 않는다. 실제 거창의 지주로 한민당의 후원세력인 아버지와 혁명을 꿈꾸는 시인 아들⁵⁶⁾

의 갈등은 친일이라는 역사적 죄과와 봉건성이 미쳐 사라지지 않은, 탈 식민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고스란히 반영된 것이다.

이 시의 가장 중요한 모티브는 ‘아버지’의 부정이다. 새로움에 대한 열망이 극점에 달하는 혁명의 시대에 아버지상은 부정해야 할 봉건성의 상징이다. 해방기에 이러한 ‘아버지 부정’의 모티브는 문학 작품에서 자주 등장한다.⁵⁷⁾

‘아버지 부정’의 모티브 역시 해방기 서사에서 자주 드러나는 것이다. 혁명가인 아버지는 귀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버지 부정’의 모티브는 해방기 대표적인 혁명 서사인 『사슬이 풀린 뒤』에서부터 예견된 것이었다. 아버지(남편)과 아들 삼형제의 고난은 국가의 고난을 상징한다. 물론 이러한 수난에 초점에 맞추어져 있기는 하지만, 이 수기는 “기미년부터 27년동안 남편과 아들 3형제의 연달아 계속하는 옥중생활 때문에 고생하신”, “가엾은 어머니”를 “위로해드”⁵⁸⁾리기 위해 쓰여졌다고 한다. 그리고 삼형제의 고난을 함께 하며 혁명을 뒷바라지 한 아내에 대한 연민 어린 회고가 등장한다. “15년 결혼생활 동안에 갖은 고생으로 3형제의 뒷바라지만 하다 38세의 나이로 돌아간” 아내는 오기영에게, 박현영과 김형선처럼, 끝내 전향하지 않았던 형 오기만과 같은 투사로 기억된다.

이렇게 한 가족의 수난으로 기억되는 식민지 시기 회고의 서사는 향후 해방기 가족 서사가 어떻게 진행될 지를 암시해 둔다. 일단 아버지가 혁

56) 실제로 김상훈은 학병세대로 징용에 끌려갔다 병으로 돌아온 직후인 1944년 이후 항일청년단체인 협동당 별동대에 활동하다 옥고를 겪은 바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인의 회고가 들어있는 김상훈, 『발(跋)-상민의 시집 『옥문이 열리든 날 서문』, 1948.5.30(『김상훈 전집』 참조); 최명표, 『해방기 김상훈 시의 갈등 양상』, 『현대문학이론연구』Vol.35, 현대문학이론학회, 2008. 참조.

57) 김남천의 소설 『1945년 8.15』의 남성주인공 김지원은 북에 남아 토지개혁으로 고통 받고 있는 지주인 아버지의 고난을 당연한 것이라 여긴다. 이 역시 아버지 부정의 서사인 것이다.

58) 오기영, 『사슬이 풀린 뒤』, 『신천지』 2호~5호, 1946. 3. 1~1946. 6. 1

명 활동으로 일찌감치 죽고 없다는 것(혹은 부정해야 될 대상), 혹은 청년 혁명가들 이외에도 여성들, 어머니, 아내가 등장할 것이라는 점이다.

모친은 참으로 진보적이었다. (중략)

「너 두말할 것 없이 오늘부터 야학인지 때대가런지 당장 그만두엇! 쌀을 퍼 멕여가며 야학을 한다는 놈니 세상천지에 어디있나!」 호령이 벼락같다. 그는 무릎을 꿇고 아버지 앞으로 나갔다. 「아버지 아버지는 오늘 조선의 현상이 어떠한지 모르십니다.」

..그후 열흘을 두고 그의 모자는 아버지를 달랬다. 봉건의 아성은 양면공세에 드디어 성문을 열고 말았다. 그리하여 쌀 세가마니는 그의 집광에서 어려운 농민의 아해들의 명랑과 희망을 이루어주는 석반의 재료가 되었던 것이다.⁵⁹⁾

제목인 ‘지주의 아들’이 상징하는 바대로, 이 소설에서도 역시 지주 아버지/야학을 하는 혁명가 아들이 대립한다. 혁명가 아들은 소작인들에게 창고의 곡식을 나누어주고자 하나 아버지는 ‘오늘 조선의 현상’을 모른다. 물론 나중에 아버지의 허락 하에 곡식을 나누어주는 해피 엔딩으로 끝나지만, ‘아비’ 부정 모티브는 서사의 토대를 이룬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어머니’라는 존재성이 부각되는 것이다. 인용된 “모친은 참으로 진보적이었다.”는 구절은 노골적으로 어머니를 부각시키는 것이다. 앞서 김명시 여장군에 대한 노천명의 보고서에서도 “어머니에게서 받은 혁명 사상을 소녀가 자라나가는 대로 가치자라서”⁶⁰⁾란 구절이 나온다. 김명시 장군의 가르침이 아버지가 아닌, 오빠도 아닌, 어머니에게서 배운 것이라는 강조점은 흔히 식민지 시기 사회주의 여성의 정체성으로 구성된 ‘오빠에서 혁명을 배운 여동생’, 혹은 ‘남편에

59) 류리섭, 『신인창작- 지주의 아들 진실성』, 『신천지』, 1947.8.1, 134~136쪽 참조.

60) 노천명, 앞의 글 참조.

게서 혁명사상에 감화받은 아내⁶¹⁾라는 도식적 서사에서 벗어난 것이다. 이 소설에서도 어머니는 아들의 사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탐욕스러운 아버지에 비해 아들의 사상과 그 실천을 뒤에서 후원하는 ‘진보적’인 인물이다.

해방기 소설에는 이러한 어머니 형상이 잘 드러난다. 쟁의 도중 죽은 아들 때문에 투사로 변모하는 어머니(박찬모, 『어머니』), 정신대로 끌려간 딸을 찾아 데리고 오는 어머니, (장덕조, 『함성』), 배가 고파 오디를 따 먹은 아이를 매질하는 비인간적인 인물과 싸우는 어머니(강형구, 『만춘』) 등 강인하고 자율적이며 불리한 환경에 대항하여 싸우는 ‘어머니’⁶²⁾들의 모습이 종종 나타난다.

김상훈의 다른 시에서도 혁명적 어머니는 중요한 형상이다.

이젠 모두 피투성이다//

눈물을 머금고라도/젓쪽 아래 아양을 떨지 못한 허물로/남편을 빼앗기고 산 어매야//

머리털이 실같이 히여서/부총회관으로 가는 어매야//

쌀을 빼앗기고/자식을 잡혀 보내고/가난했던 허물로 상전의 개에 물려/이제 모두 피투성이가 되어서/엄연히 싸움터에 선 어머니의 모습//

어머니와 함께 간다/어머니는 편지 읽듯이 혁명가를 웨이며/눕었으니 앞장서겠다고 별판으로 달려간다//

동무야 주먹을 쥐자/어머니와 함께 싸우려 가는 길이다//

거리마다 피투성이다./누구에게 물려받은 총알인지/거리마다 피투성이다//

61) 김기진은 대개 여자는 “공산주의자에게 가면 공산주의자가 되는 모양”이라고 했다. 이에 대한 반론은 장영은 앞의글 참조.

62) 순서대로, 박찬모, 『어머니』, 『문학』, 1947.2., 장덕조, 『함성』, 『백민』, 1947.7., 강형구, 『만춘』, 『문장』, 1948.10이다. (이에 대해서는 김지혜, 『해방기 소설에 나타난 여성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28쪽 참조)

누더기 속에서 버리밥을 너홀어/제비새끼처럼 입바추어 먹여 길든/이땅
아들들이 함부로 쓰러지는 것을/어머니를 부르며 “어머니나라 만세!”/풀뿌
리를 짓씹으며 쓰러지는 것을/눈보라 얼어붙은 따 우에서/몇날 몇밤을 안
구 우는 어머니/몬지와 바람과 가난에 걸어/어머니의 눈알이 노해서/노한
눈알이 도적을 노린다.//

동무야 힘을 얻자/어머니 뱃속에서 열 달 피를 모아 자라온 우리/발을
맞추어 몽처 걸여가는 곳은 어머니의 가슴/기빨들고 노래부르고 뛰면/주
름진 어머니의 얼굴이 웃는다.//

낡은 행주치마에/눈물도 아롱진 채/자식과 며누리와 딸의 목숨을 지키
려고/총알받이나마 싸우려 가는 어머니/편지읽듯 혁명가를 웨이며/바람
속에 내달는 어머니의 모습//

어머니 당신의 아들들도/이렇게 함께 갑니다.

-김상훈, 「어머니에게 드리는 노래」전문-

이 글에서 어머니는 우선 “챗쭉 아래 아양을 떨지 못한 허물로/남편을
빼앗기고 산” 봉건제도의 희생양이다.⁶³⁾ 그래도 머리털이 실같이 히여서
/부총회관으로 간다. 인생의 황혼기에 새로운 주체적 삶을 꿈꾼 것이다.
게다가 “이땅 아들들이 함부로 쓰러지는 것”을 보고는 “혁명가를 웨이”
는 투사가 된다. 반면, 이 시에서 아버지는 무능한 존재로 나온다. 할머니
니가 지주네 집에 쫓아가서 목을 맬때도, 복레가 첩으로 끌려갈 때도 아
버지는 그저 발을 떼이지 않기 위해서라며 침묵을 지킨다. 해방 되기 전
에 아버지는 죽고 그 자리에 남은 어머니와 여동생, 그리고 돌아온 남성
주인공 둘썬, 새로 들여온 며느리 점이가 혁명이 가족을 구성한다. 물론
둘썬이 있지만, 서사의 흐름은 어머니와 복레가 주도한다. 안해 점은
다른 집에 민며느리로 들어가 고생하던 아이를 어머니가 수양딸 삼아 데

63) 김상훈의 시의 특징 중 하나가 여성의 억압이 곧 봉건성의 상징으로 그려진다는
것이다. 시 「며느리」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김상훈, 「며느리」, 『항쟁의 노래-김상훈
전집』, 친구, 1989 참조)

려운 존재이다. 돌쇠는 어머니의 의견을 믿고 따라, 점이를 기꺼이 받아들인다. 이러한 점은 모계중심의 가족서사, 이들 가족의 민주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혁명과 함께 커가는 가족이여/위우(渭雨)의 눈에는 태양같이 이글거리는 힘의 상징

낡은 것은 허물어진다/지지하게 천식을 보존한 냄새하는 봉건/정녕 저 것은 망하고야 마는 것

보라! 새것이 벌써 성장하지 않았느냐……

김상훈에게 “혁명과 함께 커가는 가족”, 가족주의적 이상향은 모계 중심 가족이다. 아버지 중심의 가족이 “낡은 것”, “봉건”의 상징이라면, 여기서 제시된 가족, 모계 중심 가족은 새로운 혁명의 씨앗이다. 가부장제에 대한 근본적인 반란인 것이다. 여기서 “낡은 것”, “봉건”이 식민성의 상징이라면, 가족의 혁명성은 새로운 민족국가라는 비전과 연결되는 것이다. 서사시 『가족』에는 어머니로 상징되는 관용과 포용, 그리고 돌쇠와 복레, 아내 점이가 맺고 있는 깊은 우애와 연대가 존재한다.

그의 시 『어머니에게 드리는 노래』에서 청년들은 죽어가면서 ‘어머니 나라 만세!’를 외친다. 모든 조국(국토)은 ‘어머니’로 치환 가능하다. 그러나 특별히 김상훈의 시에서 ‘어머니나라’는 모계중심의 평등과 연대의 나라였다.

이처럼 해방기 문학 텍스트에서는 어머니와 누이의 혁명성이 강조된, 가족 서사가 존재한다. 이는 식민성의 상징인 아버지를 부정해야 탈식민의 공간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된 이상주의적 형상이다. 이러한 점은 해방기 청년 지식인들의 진보성과도 그 궤를 같이 하는 것이며, 그만큼 해방기는 다양한 이상주의적 열정이 가능했던 시대였다.

3.3. ‘어머니의 죽음’, 혁명적 가족 서사의 한계

해방기 국가건설을 위한 젠더 파트너십의 기획은 여성 혁명가의 귀환으로부터 시작되어 정치적인 동력을 얻었다. 문학텍스트 내부에서는 그 여성혁명가들이 이상주의적 가족주의 관념 안에서 활약한다. 그러나 이러한 혁명가 어머니의 형상은 비극적 파토스가 더해지면서, 점차 그 한계를 드러낸다.

『가족』에서 사건의 단초는 지주 황참봉의 횡포로 받을 빼앗겨 이에 목숨으로 대항한 할머니의 죽음이다. 할머니는 황참봉 집을 찾아갔으나 문을 걸어 잠그고 열어주지 않자 문 앞에서 목을 매 자살한다. 할머니의 죽음으로 시작된 가족의 서사시는 비장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서사시가 어머니의 죽음으로 끝을 맺는다는 것이다.

어머니의 가슴에도/돌팔매가 날러왔다/피가 듣는다 붉고 검은 피/어머니는 쓰러졌다/살이 찢기우면서도 부르짖고/부르짖으면서 숨이 켜다/“정의는 반드시 이기리다/너희들의 야수같은 잔학으로 하여서도/사랑의 피는 헛되어 흐르지 않으리라.”//((중략)백만의 병사로도 어찌할 수 없는/위대한 모성애의 찬란한 개화를 위하여/모도 손을 잡으라!/튼튼히 손을 잡고 서라!
-김상훈 『가족』 중 일부-

인용된 시구절은 서사시의 절정을 수놓는 대목이다. 가장 위태로운 투쟁의 순간에 어머니의 죽음은 비장미를 선사한다. 여기서 흘린 어머니의 피는 “정의”의 피이며, “사랑의 피”이다. “위대한 모성애의 찬란한 개화”는 정의와 사랑을 위해 이루어진 것이다.

이로써 해방기 혁명적 가족 서사는 할머니의 죽음에서 시작되어 어머니의 죽음으로 끝난다. 물론 그 피의 결과, 청년들, 남은 아들과 딸들이 미래의 혁명 투쟁을 기약한다. 게다가 이 서사시에서 어머니의 죽음은 가장 치명적인 벽, 계급적 갈등까지도 봉합시킨다. “사랑의 피”이기에,

혁명을 위해 지연시켰던 지주 위우와 여성노동자 복래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 혁명의 “길동무”, 동지애로 승화된 것이다.

이 서사시의 끝자락에는 “슬픈 이야기가 끝난 다음부터/살려는 노력은 개시되는 것이다.”라는 구절이 나온다. 이러한 비극적 상황을 예언한 복선인 것이다. 잔인한 구도다. 그런데 아버지의 부정을 전제하고 시작한 가족 서사에 왜 굳이 할머니와 어머니의 희생이 또 필요한 것일까? 이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해방기 텍스트에서 어머니가 호명되기 시작한 지점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무슨 무기를 가졌다고/무슨 흉계를 꾸뻐다고/무슨 몹쓸매국노이라고/내 아들의 가슴에 기관총을 쏘았던말인가!/정의의 병사! 내아들과 내아들의 씩씩한 동무들이/불타는 『건국』의 꿈을 안고 편히쉬는 그새벽에//(중략)

사랑하는내아들아!/내아들의씩씩한 동무들아!/조국을위해 인민의행복을위해 『테모크라시즘』전선에나서/집과형제를버리고 그리던학원도버리고 용감하게싸우던내아들아!/적이아닌우리사람의 손에죽단말이웬말인가!(64)

슬프다 동포여! 어머니들이여! 우리의 『피흘린 기록』이 어찌 또 다시 해방된 국토우에서 그려져야 한단말입니까? 우리를 욕된 죽엄터로 내몰던 저들 민족반역자들은 또 어찌 우리들의 생명까지 빼앗으려합니까?(65)

이 시들은 1946년 1월 19일에 발생한 학병동맹사건⁶⁶⁾으로 죽어간 학병동맹 일원들에 대한 추도사와 추도시이다. 이 사건은 신탁통치에 대한 정치적 입장이 나뉘어진 좌/우익의 청년학생들이 충돌하여 유혈사태로

64) 김수향, 『진혼가-분사(憤死)한 학병의 어머니를 대신하여』, 『학병』2집, 1946.2. 61~62쪽 참조.

65) 『피학살학병사건특집-전국학병대표대회 <성명서>』, 『학병』2집, 1946.2.26, 20~21쪽.

66) 이 사건에 대한 전말과 그 형상화에 대한 논의는 이해령, 『해방(기); 총 든 청년의 나날들』, 『상허학보』, 27집, 상허학회, 2009.10 참조.

까지 치달은 비극적 사건이다. 이에 대한 한 연구에서 학병동맹사건을 ‘동족살해 모티프와 폭력회수의 논리’가 출현하는 하나의 사건으로 본 바 있다. 『학병』2호의 주요 슬로건 중 하나가 “왜적(倭敵)에게 살아온 목숨 동적(同賊)에게 쓰러지다!”인 점을 이러한 점을 증명해 준다. 그리고 이 추도호의 또 다른 슬로건은 “민족반역자를 소탕하라! …어머님…어머님…67)”이다. 인용된 시에서도 “슬프다 동포여! 어머니들이여!”라고 호명한 후에 그 분노를 터뜨린다. 그만큼 이 추도호에서 ‘어머니’란 키워드는 중요한 것이다.

이에 대한 한 연구는 이미 시인들이 ‘피’와 ‘생명’이라는 시어와 함께 그 육신의 근원이자, 그 주검에 가장 침통해 할 존재로 ‘어머니’를 불러낸다는 점을 주목한 바 있다. “어머니와 누이들 모르는 아닌 밤중에”라는 시구로 시작한 김기림의 추도시의 마지막 연도 “그날밤 어머니는 어느 산골에서 무서운꿈 소스라쳐 깨셨으리라”(『두견새』)68)이다.

이 시 구절이 말해주듯 동족에게 살해 당한 학병의 죽음은 어머니의 눈물이 되고, 그것은 곧 ‘피’, ‘생명’으로 환원되곤 하는 ‘민족 국가’ 수립의 길에 드리운 불길한 전조가 된다.

그런데 이 논문이 주목한 대로 이 시기를 기점으로 특별히 ‘어머니’가 호명되기 시작한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일이다. 남녀불문하고 ‘어머니!’란 무의식적 모태언어가 튀어나올 때는 곧 긴급한 위기 상황이다.

게다가 이 시들에서 공통적으로 ‘어머니’란 주체는 아들의 죽음 이후에 소환된다. 이 시들에서 어머니는 “내이들의 가슴에 기관총을 쏘았던 말인가!”라고 절규하며 등장한다. 김상훈의 시 『가족』에서도 어머니는 아들 돌씨가 테러를 당한 후 “내 이들을 내나라~”면서 “핏발이 선 노호”로 일어선다. 혈육의 상해나 죽음만큼 큰 충격을 없을 것이다. 그것이 모

67) 『학병』 2호, 1946.2, 26쪽.

68) 이해령, 앞의 글, 23쪽, 26~28쪽 참조.

성성의 신화와 결합될 때, 정서적 공감대는 극대화된다. 결국 이들 시에서 행한, ‘어머니!’의 소환은 혁명을 회구하던 남성주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 그 위기 상황을 구명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다. 정서적 파토스(모성성)로 이성적 논리(남성성)의 파행을 극복하려 한 것이다.

그런데 유의해서 보아야 할 것은 어머니에게는 이름에 없다는 점이다. 해방기 돌아온 혁명 전사의 이름 중 하나가 김명시 장군이었다는 점을 다시 기억해 보자. 이름을 가진 개별적 개체로 호명되지 않고, ‘어머니’로 호명되는 상황은 여성노동자가 그나마 ‘순이’⁶⁹⁾(순(順)하다는 뜻)이라는 이름으로 출현하는 것에 비할 때에도 문제적인 것이다. 초기에는 이름으로 호명되었던 여성 혁명가가 ‘어머니’로 호명되는 상황에는 여성혁명가의 개별성을 인정하지 않는 기본 태도가 숨어 있는 것이다. 고리끼의 『어머니』의 주인공 ‘어머니’처럼 해방기의 혁명적 어머니도 ‘아들의 죽음’으로 분해서 일어선 것이지, 스스로 자각한 존재가 아니었다. 여성혁명가가 이름으로 호명하지 않고, 가족의 한 성원으로 호명되는 상황은, 유관순이 장군, 어린이 등 호칭과 달리 누나로 더 많이 불리는 점과도 관련이 깊은 것이다. 그 가족 호칭 역시 남성(아들, 오빠)의 목소리로 호명된 것이다. 여성을 개체로서의 여성성을 소거시킨, 누이나 어머니로 호명하는 상황은 가족주의 본연의 성격 그대로 남성중심적인 것이다.⁷⁰⁾

한국현대문학사에서 ‘누이’의 호명에는 계보가 있다. 식민지 시대 임화

69) 김상훈의 시 『순이』, 임화의 시 『네거리의 순이』가 그 예이다. 한국문학사에서 혁명 시에 ‘누이’가 등장하는 상황에는 나름 계보가 있다. 우선 식민지 시대 임화의 단편서사시 『우리 읍바와 화로』, 『네거리의 순이』에 등장하는 누이의 목소리는 정서적 공명심을 높여주는 장치인 동시에 지식인 남성 주체의 나약한 혁명 정신을 보강해 주는 위장 전술이기도 했다. 그리고 1970~80년대 등장하는 누이의 형상, 열사의 어머니 등의 이미지가 계보를 구성한다.

70) 가족주의 내부에서는 남성들도 개별주체로 호명되기 어렵다. 그리하여 이러한 가족주의 서사는 일 개인에게는 억압적인 것이며, 그리하여 일면 국가주의 서사와 만날 위험도가 크다.

의 대표적 혁명시 『우리읍바와 화로』, 『네거리의 순이』에 등장하는 화자인 누이의 목소리는 오빠의 진정성을 청자에게 증명시키는 시적 장치⁷¹⁾일 뿐, 주체가 아니었다. 비록 오빠의 체포로 혁명의 길에 들어섰다고 하지만,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과업은 미래의 혁명투사인 남동생 영남을 지키는 것이다. 순이 역시 감옥에 갇힌 혁명 동지의 애인으로 호출될 뿐 동등한 의미의 동지가 아니었다. 임화의 시에서도 누이는 혁명의 길을 가고 있는 오빠라는 남성주체의 성장, 남성화에 정서적 공감대를 부여하고, 그 정당성을 부여하는 매개체일 뿐인 것이다. 결국 식민지 시대 남성 혁명가도 누이의 호명을 통해서 자신의 남성성을 보장받았던 것이다. 이는 해방기 텍스트에 이렇듯 ‘어머니’와 ‘누이’가 호출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에도 유효한 틀을 제공한다. ‘어머니’가 대한민국 건국사의 비정상성을 암시하는 학병동맹 사건에서부터 호출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어머니 혹은 누이의 긴급 호출은 동시에 대한민국 남성성의 위기가 도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누이 콤플렉스가 임화 생애에서 주기적으로 분출해 올라온 것은 임화 생애의 위기 그 자체를 가리킴’이며, ‘그런데 그 위기가 실상 한국정신사의 위기에 다름 아니었다는 점’⁷²⁾을 기억한다면 이러한 맥락은 더욱 설득력을 발휘한다. 또한 이는 임화가 누이를 호출해야만 했던 식민지 혁명 서사는 해방기에도 여전히 극복되

71) ‘동지’가 된 누이란 서술될 수 없는 인과적 총체성의 이해자로서 제시된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수인이 겪을 고통이 환기시키는 걱정적이고 비극적 파토스를 가장 오랫동안 간직할 자로서 혈육-가족인 것이다.(이혜령, 『특집: 근대식으로서의 사회주의와 그 문화, 문화적 표상: 감옥 혹은 부재의 시간들-식민지 조선에서 사회주의자를 재현한다는 것, 그 가능성의 조건-』, 『대동문화연구』Vol.64, 2008, 109쪽 참조.)

72) 김윤식에 의하면, 임화에게 누이 콤플렉스의 분출은 1929년도, 1930년대 중반, 해방공간, 6·25 등 네 시기였다고 한다. 이는 한국정신사의 위기 상황이기도 하다. 영웅숭배사상에의 절망과 그것에의 형언할 수 없는 그리움에 온몸이 불타오른 시기가 바로 네 가지 시기였기 때문이다. 김윤식은 누이 콤플렉스의 분출현상은 임화의 위기 의식의 표지물이며, 그의 파탄을 구출한 가장 확실한 방도였다고 분석한 바 있다.(김윤식, 『임화연구』, 문학사상사, 1989, 192쪽 참조.)

지 못했다는 점을 증명한다.

특히 해방기는 ‘아버지기’를 꿈꾸는 것이 용이하지 않았던 식민지 시기를 지나, 새로운 주체성을 모색하는 것이 가능했던 최초의 근대적 시간이다. ‘해방공간은 그 누구에게도, 적어도 『역사를 살아온』 어떤 사람에게도 미지수이고 잠정적이고 가능성으로만 가로 놓여 있었던, 희귀한 공간, ‘모든 것이 무제한으로 가능했고 모든 것이 무제한으로 불가능했던 공간⁷³⁾으로 규정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이다. 그래서 남성 주체의 모색이 좌절되었을 때, 그만큼 간절하게 곧 즉각적인 보상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랬기 때문에, 해방으로 식민지 시기에는 호출하기 어려웠던 ‘혁명가’인 ‘여성’의 형상이 호출될 수 있었지만, 그들의 존재성은 동등하게 동지로서 주체화되지 못한 채, ‘어머니’, 혹은 ‘누이’로, 혈연적 공동체의 희생양으로 소멸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결국 해방기 거리를 행군했던 김명시 장군 같은 여성 혁명가의 형상은 역사 내부에서처럼, 해방기 문학 텍스트 내부에서도 죽음으로 소멸된다. 모계중심서사의 기획은 좌절되고 또 다른 유형의 남성중심서사가 탄생한 것이다.

4. 결론

이상으로 해방기 여성 혁명가의 형상을 살펴보았다. 1945년 해방이 되자 해외와 지하에 있던 여성 혁명가들이 귀환한다. 해방기 여러 매체에서는 이들의 귀환을 앞다투어 다루고 이는 식민지 시기 서사화되지 못했던 여성 혁명가의 정통성을 입증하는 것이었다. 이들의 존재성은 당대 여성 해방의 열망에 큰 계기를 제공하며, 실제로 남북한 단정 수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비록 부차화되지만, 여성해방은 민족국가건설 운동과

73) 김윤식, 위의 책, 209쪽 참조.

함께 여성들의 주요 투쟁 목표였다.

이러한 해방과 혁명 열기에 힘입어 문학 텍스트에도 여성혁명가의 형상이 나타난다. 문학텍스트에서 여성혁명가들은 가족 서사의 틀 내부에서 등장한다. 아버지가 부재하거나, 부정하며 출발하는 해방기 혁명 서사에서 어머니는 이를 대신할 새로운 진보적 표상이었다. 또한 여성노동자인 누이의 형상화 역시 혁명기 노동자 주체의 소환과 동시에 진행된다. 그리하여 김상훈의 경우처럼, 해방기 혁명서사의 주체들은 혁명적인 가족서사를 꿈꾸었고 이는 연대와 관용을 기반으로 하는 유토피아적 ‘민족 국가’의 형상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 역시 남성중심주의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한 것이다. 우선 어머니와, 누이의 호명 자체가 남성의 위치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어머니와 누이는, 김명시 여장군 등 여성혁명가들처럼, 이름으로 호명되는 개별성을 갖춘 존재가 아니었다.

해방기는 아버지를 부정하고, 여성혁명가들이 호명되지만, 직접적으로 형상화되지 못한다. 대신 개별성을 얻지 못한 ‘어머니’와 여성노동자 ‘누이’가 등장하며, 급기야 어머니는 희생된다. 그리고 이를 딛고 아들(오빠)가 일어선다. 이러한 비극적 혁명 서사는 해방기가 여전히 청년의 시대였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또한 이들 누이, 혹은 어머니의 호명 역시 당대 남성 주체 재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당대 역사적 상황으로 인해 훼손된 남성 주체성을 보상받기 위한 것이었다. 대한민국 현대 서사에서 ‘어머니’와 ‘누이’의 소환은 가장 극적이고 절박한 순간에 이루어진다. 즉, 혁명을 회구하던 남성주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 그 위기 상황을 구명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며, 이는 정서적 파토스로 이성적 논리의 파멸을 극복하려 한 시도이다.

이처럼 해방기를 지나 대한민국 건국 이후의 텍스트에도 여전히 혁명가인 누이와 어머니가 호출된다. 1980년대 민중 서사에 등장하는 어머

니, 누이상이 그 예이다. 이는 소위 대한민국 진보적인 남성 주체들의 가부장제적 의식을 투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해방기에 남성주체들이 어머니를 호명했던 것처럼, 이 또한 대한민국 정치사 전반을 넘어, 아직도 이러한 남성성의 억압, 그리고 위기가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는 주체들이 총을 들어야 하는⁷⁴⁾, 늘 혁명가이기를 강요받는 대한민국사의 단면이다. 그래서인지 소위 진보적 남성 작가들도 서정주의 『국화옆에서』의 누이⁷⁵⁾처럼 ‘어머니’ 혹은 ‘누이’를 대한민국 남성성의 상처를 수습해 줄 만병통치약으로 호명하는 데 무의식적으로 공모하게 된다.⁷⁶⁾ 해방기 가족 서사는 이러한 공모의 출발점이다.

그렇다면 어머니의 죽음을 딛고 일어난 혁명가의 후예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가족서사의 후일담을 보자. 최인훈의 『광장』은 바로 율복한 사회주의자 아들 이야기이다. 1960년 탄생한, 해방 이후 최고의 남성 주인공 『광장』의 이명준의 서사도 아버지(국가)가 부재한 현실에서 출발한다. 잃어버린 애비를 찾아 해매는 주체의 서사가 『광장』이라는 성장드라마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애비를 뛰어넘고자 했던(새로운 국가를 희망했던) 그는 온전한 주체로 이 땅에 서지 못하고 기껏 애인 ‘윤애’에게 폭력을 가하며 비정상적인 ‘남성되기’를 시도한다. 그러나 이러한 도피 프로젝트마저 윤애의 죽음으로 완성되지 못한다. 그리고 결국 어머니의 자궁 ‘바다’로 회귀하고 만다. 이 광경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건설 과정에서 수행되는 남성되기 프로젝트가 얼마나 곤혹스러운 것인가를 암시

74) 해방기 총을 든 학병, 빨치산과 서북청년단의 형상은 향후 진행된 대한민국 남성되기(국가건설)역사의 비극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내용은 이해령, 『해방(기)-총든 청년의 나날들』 참조.)

75) 대한민국 대표 서정시 『국화옆에서』는 누이의 수난을 성화시킴으로써 회생을 부추키는 매우 음험한 텍스트이다. 소위 진보적 남성 작가들도 이러한 점에는 공조한다.

76) 이기성은 이미 해방기 시를 논하는 자리에서 이 가족주의가 국가주의와 공모될 가능성에 대해서 시사한 바 있다. (이기성, 『해방기 시에 나타난 가족주의와 국가주의』, 『상허학보』 제26집, 상허학회, 2009.6. 참조)

하는 것이다.

거의 같은 시기(1959)에 발표된 손창섭의 『낙서족』에 등장하는 주인공 박도현도 독립투사의 아들이다. 『광장』이 전쟁 이후 혁명가의 아들을 형상화했다면, 이 작품은 식민지 시대를 배경으로 혁명가의 아들을 소환한다. 이 소설은 주인공 도현의 억압된 의식과 욕망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는 그가 원하는 당당한 혁명가의 아들이 되는 대신, 기껏 민족적 보복이라는 미명하에 성범죄를 저지르며 가학적인 삶을 산다. 우여곡절 끝에 그는 혁명가로 인정받게 되지만, 이는 단지 그가 독립투사의 아들이라는 후광 때문에 얻어진, 우연한 헤프닝일 뿐이다. 『낙서족』은 한 개인이 민족정 정체를 받아들이는 과정을 단지 우연적인 것으로 그림으로써, 민족-국가 담론에 대해 실랄하게 비판⁷⁷⁾하며, 대한민국 남성성에 대한 지독한 자기 모멸감을 표현한다.

이 두 서사는 해방기에 기획된 혁명적 가족 서사의 미래가, 이후 펼쳐진 비극적 역사 내부에서 끝내 기획대로 완성되지 못했음을 암시한다. 이는 비정상적으로 진행된 국가만들기 프로젝트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가족주의 내부에서는 근본적으로 여성혁명가도 남성도 자유로운 개체로 그 존재성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다.

여성혁명가의 귀환으로, 해방기는 여성이 혁명가의 형상으로 주체화될 수 있었던 행운의 시대일 수 있었다. 그리고 이들을 중심으로 연대와 관용의 공동체, 새로운 민족국가상을 꿈꿀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변형되어 이 가족주의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기획되었다는 점은 이러한 의미에서 다소 불길한 전조였다. 2장에서 소개한, 해방 직후 여성혁명가들이 꿈꾸었던 민주적인 가정의 모습은 이러한 형상이 아니었을 것이다.

77) 이에 대해서는 류동규, 『탈민족의 관점에서 본 『낙서족』』, 『어문학』 96집, 한국어문학회, 2007.6 참조.

□ 참고문헌

1차자료

『신천지』, 『여성공론』, 『여성문화』, 『여성신문』, 『독립신보』, 『민성』, 『인민』, 『신건설』, 『학병』, 『문학』 등 신문, 잡지.

김남천, 『1945년 8.15』, 작가들, 2007.

김상훈, 『항쟁의 노래-김상훈전집』, 친구, 1989.

2차 자료

권명아, 『가족이야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책세상, 2000.

김동훈, 『마지막 빨치산' 정순덕 할머니 숨겨.』, 『한겨레』, 2004년 4월 2일.

김윤식, 『임화연구』, 문학사상사, 1989.

김지혜, 『해방기 소설에 나타난 여성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남화숙, 『인물발굴, '여장군' 김명시의 생애』, 여성사연구회 편, 『여성』2, 창작사, 1988.

류진희, 『염상섭의 『해방의 아들』과 해방기 민족서사의 젠더』, 『상허학보』 27집, 상허학회, 2009.10, 161쪽~190쪽.

박용규, 『미군정기의 여성신문과 여성운동』,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19호, 한국언론정보학회, 2002.11, 125쪽~154쪽.

윤덕영, 『자료소개 해방 직후 신문자료 현황』, 『역사와현실』, 제16권, 한국역사연구회, 1995.6, 341쪽~379쪽.

이기성, 『해방기 시에 나타난 가족주의와 국가주의』, 『상허학보』, 제26집, 상허학회, 2009.6, 151쪽~192쪽.

이나영, 『금지주의와 국가규제 성매매 제도의 착종에 관한 연구』, 『사회와역사』 통권 제75집, 한국사회사학회, 2007.9, 39쪽~76쪽.

이상경, 『1930년대 사회주의 여성에 관한 연구』, 『성평등연구』 제10집, 2006, 49쪽~80쪽.

이승희, 『한국여성운동사 연구 : 미군정기 여성운동을 중심으로』, 梨花女大 박사학위논문, 1991.

- 이임하, 「특집 : 역사 속의 여성노동; 해방 뒤 국가건설과 여성노동」, 『역사연구』 제15호, 역사학연구소, 2005.12, 33쪽~62쪽.
- 이혜령, 「‘해방기’ 식민기억의 한 양상과 젠더」, 『여성문학연구』Vol.19, 2008, 233쪽~266쪽.
- 이혜령, 「해방(기); 총 든 청년의 나날들」, 『상허학보』 27집 상허학회, 2009.10, 9쪽~50쪽.
- 이혜령, 「특집 : 근대지식으로서의 사회주의와 그 문화, 문화적 표상 : 감옥 혹은 부재의 시간들-식민지 조선에서 사회주의자를 재현한다는 것, 그 가능성의 조건-」, 『대동문화연구』Vol.64,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8, 71쪽~118쪽.
- 장영은, 「특집 : 근대지식으로서의 사회주의와 그 문화, 문화적 표상 : 아지트 키퍼와 하우스 키퍼-여성 사회주의자의 연애와 입지-」, 『대동문화연구』 64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8, 185쪽~214쪽.
- 조대형, 「미군정기의 출판연구」,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 석사학위논문, 1988.
- 정종현, 「유관순 표상의 창출과 전승」, 『한국문학연구』 제36집,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9.6, 155쪽~209쪽.
- 천정환, 「해방기 거리의 정치와 표상의 생산」, 『상허학보』, 제26집, 상허학회, 2009.6, 55쪽~101쪽.
- 최명표, 「해방기 김상훈 시의 갈등 양상」, 『현대문학이론연구』 Vol.35, 현대문학이론학회, 2008, 49쪽~71쪽.

Abstract

Return of Woman Revolutionaries and Afterward
-The Figuration and Family Epics of Woman Revolutionaries in the
Liberation Period-

Park, Ji-young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figuration of woman revolutionaries appeared in the texts in the liberation period. When Korea was liberated from Japan, woman revolutionaries overseas or hidden underground returned to their fatherland. The various media in the liberation period were scrambling to deal with their return and this proves the existence of woman revolutionaries that had not been epics during the colonial period. The existence of such woman revolutionaries provides a great momentum for the aspiration for women's liberation at that time. Before the establishment of a single government of South and North Korea, women's liberation had been the major fight goal, together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 state.

On the strength of the liberation and revolutionary fever, the figuration of woman revolutionaries appeared in literature texts. Woman revolutionaries in literature texts appear within the framework of family epics. In the revolutionary epics in the liberation period when father did not exist or was denied, mother was new progressive symbol that would replace this. The figuration of sisters, who were female workers, was under way together with summon of worker principal agents during the revolutionary period. As is the case with Kim Sang-Hoon, the principal agents of revolutionary epics in the liberation period dreamed revolutionary family epics, and this was also the figuration of new utopian 'nation state' based on solidarity and tolerance.

However, this was also not completely freed from androcentrism. The liberation period denies father, and woman revolutionaries are called but

these are not directly embodied. In that place, ‘mother’ who lost her name and ‘sister’ who is a female worker appear. Furthermore, mothers are sacrificed after all and, based on this, son (brother) rises. This shows that the liberation period was still the age of youth. Also calling these sisters or mothers was also part of male dominant reconstruction projects and to compensate the male dominance impaired in the historical circumstances at that time. It is to overcome the malfunction of rational logic with emotional pathos.

Meanwhile, in the texts after the establishment of Republic of Korea passing through the liberation period, revolutionary sisters and mothers are still called. The figurations of mothers and sisters appeared in the people’s epics in the 1980s are the example. This reflects patriarchal consciousness of progressive male principal agents of Republic of Korea. And just as male principal agents called mothers in the liberation period, this, still passing through the early part of political history of Republic of Korea, indicates that such masculine oppression and the crisis are still under way. Probably because of this, so-called progressive male writers unconsciously collude in calling ‘mother’ or ‘sister’ as panacea for curing the wounds of masculinity of Republic of Korea. Family epics in the liberation period are the staring point of this collusion.

Keywords : the liberation period, woman revolutionary, return, women’s liberation, establishment of a nation state, family epics, progressive mother, woman worker, sister, masculine independence, impairment, compensation.

- 본 논문은 10월 31일에 접수되어 11월 8일부터 20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11월 26일에 게재 확정되었음.